



시어 정민주 | 한국문인협회
대의협력위원/시인
(mypoemmylife@hanmail.net)

하천과 우리 설화 3

두만강(豆滿江)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강물도 달밤이면 목매어 우는데
 님 잃은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추억에 목메인 애달픈 하소연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임가신 강 언덕에
 단풍이 물들고 눈물진 두만강에
 밤새가 울면 떠나간 그 님이
 보고 싶구나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위 노래에서 보듯 두만강은 우리 민족의 이별의 정한과 喜怒哀樂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이 설화에서는 신들이 추구하는 낙원이자 이상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두만강은 천상계와 바다와 강의 용들이다.

여기서 세 번째로 소개할 설화는 한국, 중국, 러시아의 국경을 흐르며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긴 강, 두만강에 얽힌 설화를 소개한다.

신들의 낙원¹⁾

가마아득히 먼 옛날 훈춘벌은 천고의 원시림이 울울창창하게 들어서고 백학이 떼를 지어 훨훨 날아에는 아름다운 고장으로 소문이 짜 했습니다. 옥수청산 명지가 이 고장이라는 소문을 듣고 동해 룡왕의 아들인 청룡이 한번 구경도 해보고 놀기도 할 겸 남몰래 엄엄한 룡궁을 빠져 나와서 이 고장으로 곧 추 찾아 왔습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과연 룡궁에서 듣던 바와 같이 백화가 어여쁨을 자랑하는 숲속에서 새들의 청아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훈춘강과 두만강이 합류하는 드넓은 강우에는 어선들이 흰 돛을 날리며 유유히 오가고 허허 넓은 벌에서는 샷갓 쓴 농부들이 풍년가를 부르며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원래 머나먼 서해바다에서 살던 흑룡도 이 고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침을 한 발씩 흘리다가 겨우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젠 이 락원에서 한뼉 왕노릇이나 하며 사람들한테서 공양제물이나 실컷 받아먹으면서 제 하고 싶은 대로 할 판이라고 얼싸 좋다 찾아왔는데 이게 웬 일인가! 글썽 뛰는 놈 우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꽤 씩하게도 동해에 살고 있는 애송이 청룡놈이

1) 임철호, 두만강의 양면성 고찰, 조선족 두만강 전설을 대상으로, 2011, p.177.

한 발 먼저 와 있을 줄이야! 이놈을 죽이지 않고서는 여기서 왕 노릇 하기는 글러 먹은 노릇이야!

조선민족 설화²⁾

두만강신인 용은 직접 이성계 모친에게 잉태되어 이성계로 태어난다. 이성계는 두만강신의 도움을 받으며 영웅으로 성장하여 새 왕조의 왕이 된다. 이성계는 조선족과 조선의 수호신이 되는데, 두만강은 이성계 가문과 함께 청조를 세운 누르하치 가문도 세운다.

누르하치의 선조 한왕은 처녀의 몸에서 도롱뇽의 아들로 태어난다. 신신으로부터 두만강 물속에 황제가 태어날 명당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처녀의 부친이 수영에 능한 어린 한왕에게 도롱뇽의 뼈를 찾아 명당에 걸게 한다. 한왕은 어머니로부터 자신의 출생 내력을 듣고 실을 따라 들어간 두만강 물속 바위틈에서 부친의 유골을 찾아 명당에 걸고 황제가 된다.

거인설화³⁾

아주 옛날 장길산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대한 몸집을 지닌 거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몸집이 큰 만큼 항상 먹을 것이 모자라 굶주린 채로 떠돌아 다녔다. 어느 날 장길산이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던 중 남쪽의 호남평야에 이르렀다. 다행히 그곳에는 사람들이 추수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라서 사람들은 곡식을 모아 장길산을 배불리 먹게 해주었다. 처음으로 음식을 배불리 먹은 장길산은 너무 좋아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런데 춤을 추는 장길산의 거대한 그림자 때문에 햇빛이 모두 가려져 아직 거두지 않은 다른 곡식들이 하나도 익지 않게 되었다. 농군들은 화가 나서 그를 멀리 내쫓았고, 장길산은 눈물을 흘리면서 북쪽으로 쫓겨났다. 장길산은 만주에 이르러 다시 배가 고파지자 그곳에 있는 흙이며 돌, 나무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다. 그런데 그것이 배탈이 나서 먹은 것을 다 토해내었는데 그 토한 것이 백두산이 되었고, 양쪽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압록강과 두만강

을 만들었으며, 설사가 나서 대변을 본 것이 흘러내려서는 태백산맥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변의 한 덩어리가 튀어 멀리 떨어진 것이 제주도가 되었고, 토한 뒤 '휴' 하고 긴 숨을 내쉬는 것이 큰 바람을 일으켜 앞에 있던 모든 것을 날려버려 그 곳이 만주 벌판이 되었다.

그리고 나서 다소 진정이 되자 자신에게 잘 해주었던 남쪽 사람들이 생각나서 그들에게 거름이라도 주겠다고 생각하고는 높은 곳에 올라가 남쪽을 향해 오줌을 누었다. 하지만 그것이 홍수가 나서 남쪽 사람들은 떠나려가 살아남은 사람들이 일본인의 시조가 되었고, 북쪽에서 떠나려 온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늘날 한반도에 사는 사람의 시조가 되었다고 한다.

옥녀늪⁴⁾

〈옥녀늪〉 도망강(逃亡江) 유래담을 배경으로 하는 조선족 벼농사설화이다.

조선족 처녀 옥녀는 두만강 하류에서 벼농사를 짓는 조선족을 위해 천지 물속에 들어가 물줄기를 넓힌다. 옥녀는 〈두만강 전설〉에서 지하 물줄기를 뚫은 셋째 용자의 도움을 받아 두만강 수량을 많게 한다. 이로 인해 두만강 하류의 조선족은 근심 없이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셋째 용자와 옥녀는 용왕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셋째는 더 이상 물줄기를 내지 말라는 부왕의 명을 어기고 인간을 도와준 죄로 벌을 받고, 옥녀는 인간의 신분으로 천지에 들어와 용궁계의 질서를 어지럽힌 죄로 죽임을 당한다.

- 작은 '늪'에서 흐르는 개울가에 조선족 처녀 옥녀가 아버지와 함께 벼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 늪의 물이 적어 두만강 하류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고통이 심했다.

2) 임철호(전주대), 두만강의 양면성 고찰, 출판사, 한국어문학회, 2011, p.185.

3) 권태호, 거인설화의 전승형태와 변이과정, 생활문화연구 제17호, 2006, p.34, 권태호, 한국의 거인설화, 도서출판 역락, 2002, 12면 7-12쪽 인용.

4) 임철호, 〈부르후리〉전승과 옥녀늪연구, 세계문화비교연구, 세계문화비교학회, 2011, pp58-59.



- 옥녀가 용왕의 눈을 피해 천지 물속에 들어가 높으로 통하는 지하물줄기를 살펴보니 입구가 좁고 큰 돌이 막고 있었다.
 - 옥녀가 곡괭이로 물줄기를 넓히기 시작했다.
 - 옥녀가 용왕의 셋째 아들과 마주쳤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셋째 아들이 천지의 물줄기를 넓혀주었다.
 - 천지의 물이 줄어들자 셋째 아들이 한 짓임을 알고 용왕이 벼락대신한테 명하여 옥녀를 가루로 만들고 셋째를 짓가락처럼 줄어들게 하였다.
 - 가루가 된 옥녀가 두만강으로 흘러가자 셋째도 옥녀의 원혼을 따라 갔다.
 - 옥녀와 용자의 노력과 희생으로 작은 높이 큰 높으로 변하고, 수량 또한 풍부해져 하류의 조선족이 걱정 없이 벼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 조선족 농민들이 옥녀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옥녀늪이라 불렀다.
- 두만강 유래담 (두만강 전설)⁵⁾**
- 백두산 천지의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었을 때의 일이다. 천지 용왕이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다섯 아들의 재주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 * 천지의 물이 넘치지 않도록 각자 재주껏 물길을 내 보라 하였다.
 - * 첫째는 막힌 산을 쪼개고, 들판을 가로지르는 북쪽 물길을 냈다.
 - * 둘째는 아름다운 산천은 피해가며 서쪽 바다로 흘러드는 물길을 냈다.
 - * 셋째는 용왕의 의도를 짐작하고 명을 받기도 전에 천지의 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분출하여 동해로 흐르는 물길을 냈다.
 - * 용왕이 천지의 물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보고 연유를 알아보게 했다.
 - * 셋째가 와서 두 형과 달리 지하로 도망쳤다가 솟아올라 동해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물길을 냈다고 했다.
 - * 용왕은 천지 물이 더 이상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이상은 물길을 내지 못하게 하였다.
 - * 북쪽으로 흐르는 물길을 송화강, 서쪽으로 흐르는 물길을 압록강이라 했는데, 동쪽으로 흐른 물길은 땅속으로 도망쳤다가 솟아올랐기 때문에 두만강(豆滿江), 도망강(逃亡江)이라 하였다. 🍎

5) 임철호, <두만강전설>의 전승과 의미, 한국어문학회, 2012, p.86.